

목조 금강살타 좌상

금강살타는 우주의 부처인 대일여래의 화신이며 밀교 수행승이 목표하는 궁극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(910~1007)가 966년부터 1007년 사이에 산에서 나오지 않고 수행하는 동안 금강살타와 만났다고 합니다. 쇼쿠 대사에게 밀교의 가르침을 전한 이가 이 금강살타였습니다.

이 금강살타상은 정교한 청동 관을 쓰고 꽃처럼 보석을 박은 목걸이를 몸에 걸치고 있습니다. 오른손에는 오고저라는 무기를 들고 있는데, 이 무기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번개처럼 강한 힘을 지닌 남성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한편 왼손에는 오고령이라는 요령을 들고 있는데 이 요령은 지혜와 정화를 나타내며 여성적인 면을 보여줍니다. 서로 다른 요소를 지닌 이 도구들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금강살타보살의 특징입니다. 금강살타는 연꽃 위에서 가부좌를 틀고 명상하는 고전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. 연꽃의 각 꽃잎은 불교의 삼보인 불법승(부처님과 부처님이 설법한 가르침과 그 부처님을 받드는 승려)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

조각상 아래쪽 비문에는 1359년에 나라 도다이지 절에서 불상을 만든, 유명한 게이파의 개조 운케이(~1223)의 직제자였던 고슌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조각하기 전에 여러 노송나무 재료를 조합하여 고정하는, 요세기즈쿠리라는 세련된 접합방법을 사용하였고, 안구에는 얇은 수정 렌즈가 끼워져 있습니다.